

## 창업가의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메타분석\*

이혜영 (창업진흥원 조사연구실)\*\*

김진수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고찰한 기존의 실증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통합하여 향후 연구에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고찰한 실증분석 결과가 혼재되어 있음에 따라, 메타분석 방법론을 통해 개별 연구에서 도출된 상이한 결과를 표준화된 통계치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창업가 역량으로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을 선정하고 가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메타분석 수행 절차에 따라 15개의 연구를 최종 분석 데이터로 선정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통계 프로그램인 R을 활용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창업가의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은 기업성과를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요인이 확인되었다. 또한, 각 역량요인들은 기업성과에 모두 중간정도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 중 기업성과에 대한 효과크기가 가장 큰 역량은 전략적 역량이며, 그 다음으로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 순으로 효과크기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직까지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 부재한 실정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의 이론적 기초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창업가 역량, 창업기업, 벤처기업, 창업가, 역량, 메타분석

## 1. 서론

세계 각국에서 벤처·창업기업들이 국가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은 이제 주지의 사실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00년대 벤처붐에 이어 벤처강국으로 재도약하기 위해 ‘제2 벤처붐’ 조성방안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19년에 들어 벤처·창업 지원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는 등 지원 범위와 사업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다.

민간부문에서도 양적 성장은 뚜렷하다. '18년 신설법인인 10년간 연속 증가하여 최초로 10만 개를 돌파하였고, 신규 벤처투자 규모도 3조 4천억 원을 상회하여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은 기조 아래 정부의 지원을 수혜받는 기업과 민간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투입이 ‘적소(適所)’에 이루어져 효율성을 달성하고 있는가 여부에 대해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즉, 실질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창업, 성장, 생존 등 여러 측면에서 가망이 있고 유망한 창업가와 기업에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고려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유망한 창업가와 기업을 선별하고 평가하는데 있어서 살펴 보아야 할 요소는 기술성, 시장성, 재무성과 등 여러 측면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핵심 고려요인으로 창업가의 역량(competency)에 주목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벤처·창업기업은 기존 기업과 달리 상대적으로 조직 규모가 작고 인적·물적 자원이 풍부하지 않거나 뚜렷한 경영성과 지표도 부재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기업들의 성장 잠재력은 창업가 또는 팀과 같은 핵심 구성원들의 역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실제 대부분의 정부 지원사업에서는 지원기업의 선정평가 항목으로 창업가(팀)의 역량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벤처캐피탈리스트들도 벤처·창업기업의 가시적인 경영성과 평가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사람’을 중요 투자 결정요인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관점에서 Colombo & Grilli(2005)는 창업가는 조직 내 모든 자원과 활동에 대한 의사결정과 책임 범위가 넓은 사람이기 때문에, 뛰어난 역량을 가진 창업가가 설립하여 성장시켜 나가는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성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5S1A5A2A01014400).

\*\* 주저자, 창업진흥원 조사연구실 책임연구원, hylee528@gmail.com

\*\*\* 교신저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경영학부 교수, sunny@cau.ac.kr

· 투고일: 2019-05-18 · 수정일: 2019-09-14 · 게재확정일: 2019-10-07

공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창업가나 창업팀 구성원들의 역량은 창업 적합성, 창업 성공 가능성, 기업의 성장성 등을 예측하기 위한 중요한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의 관련 지원사업들이 교육, 멘토링 등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수요자 측면의 지원서비스 제공 및 모니터링에 기반한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창업가의 역량 파악의 중요성은 더욱이 강조된다.

창업가 역량은 창업분야 연구에서도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결정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그간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그 결과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Baum et al.(2001)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전문적 역량(산업 스킬, 기술 스킬)은 벤처기업 성장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적 역량(조직화 스킬, 기회 스킬)은 그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Chandler & Hanks(1993)의 연구에서 창업가적 역량(기회인식 역량, 벤처성공을 위한 열정)은 매출성장률과 경쟁사 대비 성과를, 관리적 역량은 비즈니스 규모와 경쟁사 대비 성과를 향상시킨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윤종록·김형철(2009)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그리고 기술적 역량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주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김경식(2005)의 연구에서는 경영성과에 미치는 성취 역량, 기술적 역량, 창의성, 전략적 역량, 시장감지 역량의 영향력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개념화 역량, 사회적 역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주호(2010)의 연구에서 관리역량은 재무성과 및 마케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Zhao(2016)의 연구에서는 창업성공에 대한 기업가적 역량과 기술적 역량은 유의했으나, 관리적 역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기업성과에 대한 창업가 역량 효과의 실증분석 결과가 일관성을 보이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연구의 설계와 방법론적 차이, 측정변수 및 표본의 차이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겠으나, Morris et al.(2013)은 학자들마다 상이한 분류기준 및 연구방법을 적용하여 창업가 역량을 도출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특정 역량요인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학자들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업가 역량에 대한 연구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지금까지 축적된 연구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함으로써 향후 연구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도출된 기존의 연구결과를 메타분석(meta-analysis) 방법을 통해 종합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에 대해 수행된 다양한 연구결과를 체계적이고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종합적인 분석 기법이다(황성동, 2015). 즉, 메타분석을 통해 상이한 연구설계, 표본 등

연구의 이질적인 요인들에 따른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차이점을 통계적으로 통합하여 실질적인 주효과를 도출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연구에 의존하지 않고도 전체 연구결과를 파악할 수 있다.

아직까지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양적 방법론에 기반한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연구는 국내에 부재한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의 통합·체계적인 이론적 기초를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II. 이론적 배경

### 2.1 창업가 역량

창업가의 개인적 특성을 다룬 연구는 크게 창업가의 성격적 특성에 초점을 둔 접근법과 역량에 초점을 둔 접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역량 접근법은 비교적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하였는데, 관련 연구들은 주로 개인의 생애 초기에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성격적 특성과 달리 역량은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Ahmad, 2007).

역량이 성격적 특성과 차별화되는 또 다른 점은 '성과'와 관련한 개인의 특성 관점에서 정의되는 성과 지향적 개념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Bird(1995)는 창업가의 역량을 벤처기업의 탄생, 생존, 그리고 성장을 가져오는 개인의 근본적 특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Ahmad(2007)는 창업가 역량을 사업의 성공을 달성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창업가의 태도 및 행동을 포함하는 특성으로 정의한다. 같은 맥락에서 Man et al.(2002)은 창업분야 연구에서 조직 성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성과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창업가의 특성을 탐색하는 방법은 '역량 접근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이처럼 창업가 역량이 성과 측면에서 정의·강조되고 있는 것은 자원기반 이론(resource-based theory)에 기초한다. 자원기반 이론에서는 가치 있고 고유하거나 희소하며 모방 및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 변들을 보유한 기업은 경쟁사보다 뛰어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Le Deist & Winterton, 2005).

벤처·창업기업에 있어서 창업가는 기업의 로드맵과 전략을 결정짓는 핵심 의사결정자로서(Masurel et al., 2003), 이들의 지식, 스킬 및 능력은 대체적으로 매우 희소한 자원으로 경쟁사가 개발하고 모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즉, 창업가의 역량은 기업의 차별화된 역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Tehseen & Ramayah, 2015), 이러한 기업의 내부 자원과 역량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우위를 창출시키는 주요한 수익원이 된다(Grant, 1991).

결과적으로 뛰어난 역량을 보유한 창업가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는 기업은 다른 기업보다 더 향상된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Barazandeh et al., 2015; Colombo & Grilli, 2005).

따라서 창업가의 역량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창출시키며 나아가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는 결정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 2.2 창업가 역량의 구성요인

기존 기업과 달리 벤처·창업기업의 창업가는 기업을 설립, 운영 및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기능적 역할을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는 창업가가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다차원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러한 역할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역량들을 여러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Sadler-Smith et al.(2003)은 소규모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창업가는 넓은 역량 범위에 걸친 다양한 스킬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Chandler & Jansen(1992)은 창업가가 성공적으로 완벽히 수행해야 하는 세 가지 역할로 창업가적, 관리적, 그리고 기술·기능적 역할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창업가가 이러한 역할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으로 인적·개념화 역량, 기회인식 능력, 결과 지향적 동인, 기술·기능적 역량 및 정치적 역량 등을 도출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역량들은 후속 연구(Chandler & Hanks, 1994)를 통해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그리고 기술·기능적 역량 등의 세 가지로 재구성되었다.

Baum et al.(2001)은 벤처기업 성장 모델에 포함되는 창업가의 역량을 일반적 역량(조직 역량, 기회 역량), 전문적 역량(산업 역량, 기술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Ahmad et al.(2010)은 선행연구들을 종합하여 중소기업 창업가에게 필요한 역량으로 전략적 역량, 개념화 역량, 기회 역량, 관계 역량, 학습 역량, 개인적 역량, 그리고 윤리적 역량 등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윤종록·김형철(2009)이 창업가의 역량 특성을 Chandler & Jansen(1992)의 연구를 토대로 기업가적 역량, 관리적 역량, 그리고 기술·기능적 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김경식(2005), 양수희 외(2011)는 각각 벤처기업가, 창업가의 역량으로 성취 역량, 기술적 역량, 창의성 역량, 개념화 역량, 전략적 역량, 사회적 역량, 시장감지 역량 등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시장감지 역량은 기회인식 역량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자들마다 창업가의 역량을 상이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주로 기회인식 역량, 기술적/기술·기능적 역량, 관계/사회적 역량, 조직화/관리적 역량, 전략적 역량, 그리고 개념화 역량 등으로 수렴된다.

여기에서 조직화 역량은 관리적 역량과 유사한 개념으로 여겨지며, 개념화 역량의 경우 직접적인 관찰이 불가능하거나 쉽게 식별되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지적되고 있다(Man, 2001).

Man(2001)은 개념화 역량이 전략적 역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하였으나, Chandler & Jansen(1992)은 개념화 역량을

인적 역량 및 정치적 역량과 함께 관리적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처럼 개념화 역량은 다른 역량요인들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조직화 역량과 관리적 역량을 하나의 개념으로 다루었다. 또한, 개념화 역량은 개념적 모호성으로 인해 메타분석의 대상 범인으로 선정하지 않았다.

## 2.3 기업성과

기업의 성과는 재무적 성과뿐만 아니라 내·외부 고객 만족도 등 비재무적 성과를 포함한 다양한 변수로 구성된다.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무적 성과는 주로 매출액 성장률, 투자 수익률(ROI), 순이익, 시장점유율 증가율, 고용 증가율이 활용된다(Chandler & Hanks, 1993; Gilbert et al., 2006).

비재무적 성과는 고객 만족도, 직원 만족도, 기업 이미지, 제품·서비스 품질(Ahmad et al., 2010), 미래성장 잠재력 보유, 외부의 성장잠재력 평가 정도, 목표 및 비전 달성 정도(김춘근 외, 2014), 마케팅 성과(정주호, 2010), 제품생산 리드타임 개선, 반품률/불량률 감소, 기술정보 처리 및 신제품/신기술 개발속도 향상과 같은 기술적 성과(이인우, 2009) 등이 활용된다. 이 중 비재무적 성과의 측정지표는 재무적 성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자마다 활용되는 다양성이 상당한 측면이 있다. 결과적으로 메타분석의 표본으로 선정되는 연구들을 각 성과별로 범주화할 경우 비교적 제한된 사례 수만으로 분석을 수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기업성과를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 III. 가설 설정

### 3.1 기회인식 역량과 기업성과

기회인식 역량은 충족되지 않은 고객의 니즈를 인식하고,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을 투입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모색하여 비즈니스 기회를 포착하는 창업가의 능력을 의미한다(Ahmad et al., 2010).

뛰어난 기회인식 역량을 가진 창업가는 다른 사람들이 간과할 수 있는 특정 정보의 가치를 포착할 수 있는 통찰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창업가는 여러 대안 중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회를 선별하게 되므로 기업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Yu, 2001; Chandler & Jansen, 1992).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창업가의 기회인식 능력은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입증되어 왔다. Herron & Robinson(1990)은 창업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기회인식 스킬이 기업 성공에 중요한 역량임을 확인하였다. Snell & Lau(1994)는 실증연구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한

창업가의 준비 과정이 성장하는 기업의 중요한 역량임을 규명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기회인식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창업가의 기회인식 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2 관리적 역량과 기업성과

기업이 성장하고 조직 규모가 점차 확대될수록 조직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증가하게 된다. 창업가는 복잡해지고 분산되는 조직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공식화된 조직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Kelley & Marram, 2010).

또한, 기업 내에서 높은 수준의 책임과 권력을 보유하고 있는 창업가는 구성원에게 권한위임과 동기를 부여할 줄 아는 능력 역시 보유해야 한다. Chandler & Jansen(1992)은 창업가가 관리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의 이해관계와 활동을 잘 조율하는 능력,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능력, 구성원들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하며 동기부여하는 리더십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관리적 및 조직화 역량이 뛰어난 창업가는 목표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성과를 촉진시키고, 조직 차원에서도 기업을 성장시켜나가는데 필요한 운영체계를 순조롭게 추진시켜 나갈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Kaur & Bains(2013)는 기업성과 달성에 중요한 창업가의 역량 중 하나로 조직화 역량 개념을 제시하였다. 또한, Man(2001)은 중소기업 창업가의 조직화 역량이 기업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수준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요인임을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하였다.

이상의 논의에 따라 본 연구는 창업가의 관리적 역량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2: 창업가의 관리적 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기술적 역량과 기업성과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은 자신의 분야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 수준, 도구, 절차, 기술 등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해당 산업에서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전문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Chandler & Jansen, 1992; 윤종록·김형철, 2009).

Chandler & Jansen(1992)은 제조업 및 서비스 분야의 벤처기업 성과에 대한 창업가 역량의 영향력을 탐색하였으며, 연구 결과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는 기업의 창업가는 기술·기능적

교육 수준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성공한 창업가는 해당 전문분야에서 기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김경식(2005) 역시 실증분석을 통해 벤처기업 기업가의 기술적 역량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성과가 향상됨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에 따라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3: 창업가의 기술적 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4 전략적 역량과 기업성과

급변하는 경영환경 하에서 기업이 내·외부 환경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기업의 핵심 경쟁우위의 범위가 좁아지게 된다(Kelley & Marram, 2010).

따라서 기업 전체에 대한 방향성을 결정하고 로드맵을 수립하는 창업가에게는 기업의 전략을 수립, 평가 및 실행할 줄 아는 전략적 역량이 요구된다.

뛰어난 전략적 역량을 보유한 창업가는 기업의 내·외부 상황 분석에 기초한 전략적 목표의 설정, 진행상황 점검, 과업 우선 순위 설정, 평가, 비즈니스 재설계, 전략적 행동 결정 등 전략과 관련한 역할을 수월히 수행할 수 있다(Ahmad et al., 2010).

즉, 뛰어난 전략적 역량을 가진 창업가에 의해 기업의 전략적 활동이 추진되고 실행될 경우 기업은 경쟁적 차별성을 구축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입증되었는데, 중소기업 창업가를 대상으로 수행된 Man(2001)의 연구에서는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이 투자 효율성 측면의 기업성과를 유의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논의에 따라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이 기업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4: 창업가의 전략적 역량은 기업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5 관계 역량과 기업성과

기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이 부족한 벤처·창업기업은 내·외부의 이해관계자들로부터 경쟁우위 구축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Brush et al., 2001).

이 때 뛰어난 관계 역량을 갖춘 창업가일수록 비즈니스와 관련된 공급자, 고객, 직원, 정부 관계자, 경쟁사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과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그들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얻고 자원의 접근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경식(2005)은 창업가가 기업 외부의 네트워크, 즉 기업, 금융기관, 정부, 대학 등 다양한 지원기관들과 유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외부자원 확보와 기업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성공적인 벤처기업은 부족한 내부 자원을 외부로부터 유입하거나 외부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논의에 기초하여 창업가의 관계 역량이 기업성장을 향상시킬 것으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5: 창업가의 관계 역량은 기업성장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V. 연구방법

### 4.1 메타분석의 개요

메타분석은 개별 실증연구에서 도출된 서로 다른 양적인 결과들을 효과크기(effect size)라는 개념으로 표준화하여 변수에 미치는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일괄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연구방법이다(Glass, 1976).

메타분석을 수행하는 주된 목적은 기존 연구들에서 도출된 다양한 형태의 결과들을 통합 및 비교함으로써 연구자가 보고자 하는 주제를 논리적으로 밝히는데 있다. 연구자는 메타분석을 통해 표본크기 등 개별 연구들의 이질적인 특성을 조정함으로써 양적인 차이점을 보완할 수 있다(Hunter & Schmidt, 1990; 2004).

### 4.2 연구 절차

본 연구는 메타분석 방법론에서 표준화된 절차로 여겨지고 있는 Cooper(1998)의 5단계 순서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메타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연구질문을 제시한다(Problem formulation). 둘째, 관련 문헌(연구결과)을 검색 및 선별한다(Data collection). 데이터 수집 시에는 출판물뿐만 아니라 학위논문 등과 같은 출판되지 않은 연구물을 함께 수집한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구들이 출판되는 경향에 따른 과대추정편향(overestimation bias)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셋째, 개별 연구의 질을 평가한 후 데이터를 추출하고 이를 코딩한다(Data evaluation). 넷째, 데이터를 분석하고 연구결과를 해석한다(Data analysis and interpretation). 마지막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한다(Reporting the synthesis).

#### 4.2.1 자료 수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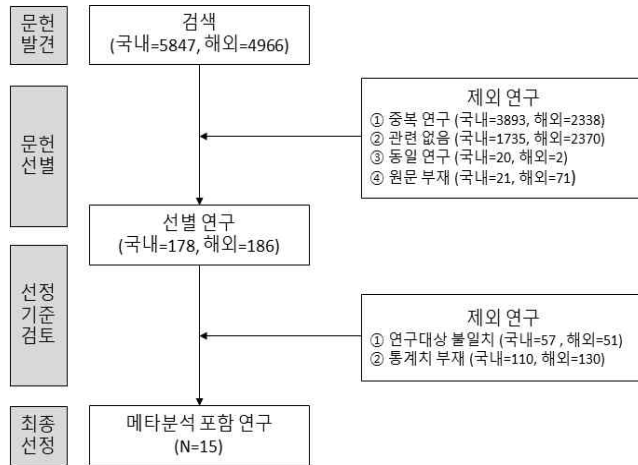
본 연구는 메타분석을 위한 데이터(연구결과)를 수집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18년까지를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다음의 방법을 통해 문헌을 검색하였다(<표 1> 참고).

- (1)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출판물과 출판되지 않은 연구물(학위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등)을 함께 검색하였다.
- (2) 창업분야와 관련된 국·내외 학술지의 연도별 출판물을 검색하였다.
- (3) 학술 데이터베이스 및 학술지에서 검색된 문헌들 중 선별된 연구들에 한해 참고문헌을 살펴보았다.
- (4) Google scholar 검색을 통해 앞서 진행된 방법에서 누락된 연구들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문헌 검색을 위한 키워드는 창업기업, 벤처기업, 창업가 역량, 성공요인 등으로 선정하고, 각 키워드를 “AND”와 “OR”의 조합으로 구성하여 검색하였다.

<표 1> 데이터 검색 기준 및 방법

구 분		내 용	
기준 연도		1990년 ~ 2018년	
언어		한국어, 영어	
검색 방법	키워드	국내	창업가 역량, 창업역량, 창업, 창업가, 역량, 창업기업, 벤처기업, 성공요인
		해외	Entrepreneurial competency/competence, Entrepreneurs, Competency/competence, Ability, Skill, Startups, Ventures, Success factors
	학술 데이터베이스	국내	DBpia, RISS, RISS(학위논문)
		해외	EBSCOhost, ERIC, PsycArticles, DBpia, RISS, POroQues, Dissertation&Theses Global(학위논문)
학술지	국내	기업가정신과 벤처연구(舊벤처경영연구), 벤처창업연구, 창업학회지, 중소기업연구, 경영학연구, 기업경영연구, 대한경영학회지	
	해외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of Psychology,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수동	국내	선정논문의 참고문헌	
	해외	선정논문의 참고문헌, Google scholar	



주) ① 중복 연구: 키워드별 검색 결과, 검색방법(학술데이터베이스, 학술지, 수동검색)별 검색 결과에서 중복적으로 추출된 동일 연구  
 ② 관련 없음: 본 연구의 목적, 주제, 변수, 방법론(사례연구 등) 등과 무관한 연구  
 ③ 동일 연구: 동일한 저자가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요약 게재하거나, 동일한 저자가 동일한 내용을 2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④ 원문 부재: 검색결과에는 노출되었으나 원문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⑤ 연구대상 불일치: 연구대상이 본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창업가) 및 기업의 유형(창업/벤처기업)과 크게 상이한 경우  
 ⑥ 통계치 부재: 본 연구주제와 유관하나 메타분석에 필요한 통계치가 제시되지 않은 경우

<그림 1> 데이터 수집 과정

다음으로 검색을 통해 수집한 자료 중 메타분석에 포함되는 연구결과를 선정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자료를 정제하였다.

- (1) 연구대상은 ‘창업가’ 이어야 한다. 해외의 경우 창업가에 대한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entrepreneurs’, ‘founders’, 그리고 ‘owners’로 한정하였다.
- (2) 기업유형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이어야 한다. 해외 문헌 선별 시에는 ‘startups’, ‘new ventures’, ‘ventures’, ‘SMEs’로 한정하였다. 단,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및 소상공인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였다.
- (3) 종속변수는 기업의 성과이어야 한다. 성과 유형은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였으며, 측정방식은 제한하지 않았다.
- (4) 창업가의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효과크기를 산출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치(본 연구에서는 상관계수)가 제시되어야 한다.
- (5) 동일한 데이터로 학위논문과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는 중복으로 처리한다.
- (6) 하나의 연구에서 특정한 기준에 따라 표본을 구분(예, 국가별, 성장단계별, 업력별, 산업별 등)하여 각 표본에 대해 각각 연구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의 결과는 표본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메타분석에 포함한다.

이상의 기준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15개의 연구를 메타분석에 포함시켰다. 표본 연구들은 모두 Likert 척도를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분석은 회귀분석, 경로분석 및 구조방정식모형분석 등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선정과정은 다음의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 4.2.2 자료의 코딩

최종 자료로 선정된 문헌들은 코딩 시트지에 기본 정보(저자, 발행연도, 출판연도, 연구대상, 산업 등)와 연구결과(기업 성과에 대한 창업가 역량의 효과를 측정할 각종 통계치, 표본수 등)를 코딩하였다.

메타분석에 사용되는 연구의 특성은 다음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 V. 가설검증 결과

#### 5.1 동질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에 대한 창업가 역량의 전체적인 효과크기를 측정하기에 앞서, 개별 연구에서 추출된 효과크기 값들의 분포가 동질성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동질성 여부 검증에는 Q 통계치 또는 I<sup>2</sup> 통계치가 활용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총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 비율을 나타내는 I<sup>2</sup>값을 통해 동질성을 검증하였다. I<sup>2</sup>는 그 값이 50%를 넘는 경우 효과크기의 이질성이 상당하다고 해석한다 (Higgins & Green, 2011).

본 연구에서 기업성과에 대한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의 효과크기의 동질성 검증을 수행한 결과, 기회인식 역량, 관계 역량의 I<sup>2</sup>는 각각 43%, 39%로 5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해당 역량요인에 대한 표본들의 평균 효과크기는 동질성을 가정하고 고정효과모형으로 산출하였다.

<표 2> 메타분석에 포함된 연구

저자(연도)	출판유형	표본	N	기업유형	업종	국가	역량	자료수집 방법	측정척도	분석방법
Chandler Jansen (1992)	1	창업가	134	벤처	제조업, 서비스업	미국	1, 2, 3	설문조사	Likert	Regression
김경식 (2005)	2	벤처기업가	255	벤처기업	IT/비IT	한국	1, 3, 4, 5	설문조사	Likert	Regression
Ahmad (2007a)	2	창업가	179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호주	1, 2, 3, 4, 5	설문조사	Liker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hmad (2007b)	2	창업가	212	중소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말레이시아	1, 2, 3, 4, 5	설문조사	Liker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Man et al. (2008)	1	오너/관리자	153	중소기업	서비스업	홍콩	1, 2, 4, 5	설문조사	Likert	Regression
윤종록 김형철 (2009)	1	창업가	266	벤처기업	제조업, 정보처리SW, 연구개발서비스, 건설운수, 도소매업, 농어림광업, 기타	한국	2, 3	설문조사	Likert	Path Analysis
정주호 (2010)	2	창업가	81	비입주기업	기술	한국	2	설문조사	Likert	Regression
김춘근 외 (2014)	1	창업가	222	창업기업	기술	한국	2, 3, 4	설문조사	Liker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임이름 외 (2015)	1	창업가	412	창업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IT, 지식서비스업	한국	1, 2, 3	설문조사	Liker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Zhao (2016)	2	창업가	187	창업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유통업, IT, 지식서비스업	중국	1, 2, 3, 5	설문조사	Likert	Regression
이대형 (2016)	2	창업가	140	창업기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한국	2, 3, 4	설문조사	Likert	Regression
이혜영 김진수 (2017)	1	창업가	273	창업기업	기술	한국	1, 2, 3, 4, 5	설문조사	Liker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유래현 (2017)	2	창업가	196	중소기업	제조업	한국	3, 5	설문조사	Liker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혜영 김진수 (2018)	1	창업가	124	창업기업	기술	한국	1	설문조사	Liker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이혜영 김진수 (2018)	1	창업가	178	창업기업	기술	한국	2, 4	설문조사	Likert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주) ① 출판유형: 1. 학술지 게재논문, 2. 학위논문

② Ahmad(2007), 이혜영 김진수(2018)의 연구는 각각 국가별,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표본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분석이 개별적으로 수행됨에 따라 연구결과를 두 개로 구분함(Ahmad-A, Ahmad-B / 이혜영 김진수C, 이혜영 김진수D로 구분하여 표기)

③ 역량: 1. 기회인식 역량, 2. 관리적 역량, 3. 기술적 역량, 4. 전략적 역량, 5. 관계 역량

반면,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의 기업성공에 대한 효과크기의 I2는 각각 71%, 85%, 71%로 5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동질성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결과들은 랜덤효과모형에 따라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하였다.

## 5.2 효과크기 계산

메타분석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효과크기의 종류는 d(표준화된 평균차 효과크기), r(표준화된 상관관계 효과크기), Odds ratio(승산비율), 이벤트 발생비율(risk ratio) 등이 있다.

이 중 승산비율, 이벤트 발생비율 등은 의학 관련 분야에서, 표준화된 평균 차이 또는 상관관계는 사회과학 분야에서 주로 활용된다(Borenstei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변수간 상관관계 분석에 활용되는 r을 효과크기로 사용하였다. 상관관계 효과크기의 기준은 Cohen(1988)이 제시한 바에 따라 0.10보다 작으면 작은 효과크기, 0.25 정도 이면 중간 효과크기, 0.40 이상이면 큰 효과크기로 해석한다.

상관관계 효과크기는 일반적으로 단순 상관계수를 그대로 사용하기보다는 Fisher's z척도로 변환하여 사용한다(Borenstein et al., 2009). z로 변환하면 대칭분포를 만든 표준화된 상관계수의 효과크기 값을 이용하여 평균 효과크기 및 동질성 검정을 거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단순 상관계수를 Fisher's z로 변환하는 공식은 다음 (a)와 같다.

$$(a) Fisher's z = 0.5 \times \ln \left( \frac{1+r}{1-r} \right)$$

\* r: 단순 상관관계수

z의 분산을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 (b)와 같다.

$$(b) V_z = \frac{1}{n-3}$$

\* n: 표본 수

측정된 효과크기의 표준오차는 (c)와 같이 분산의 제곱근으로 산출된다.

$$(c) SE_z = \sqrt{V_z}$$

<표 3> 메타분석 결과

Factor	Total			95% CI (LL, UL)	I2	p-value
	N	K	r			
기회인식 역량	1,929	9	.30	(.26, .34)	43%	0.08
관리적 역량	2,437	12	.29	(.22, .36)	71%	**
기술적 역량	2,476	11	.28	(.18, .37)	85%	**
전략적 역량	1,612	8	.33	(.24, .41)	71%	**
관계 역량	1,455	7	.23	(.18, .27)	39%	0.13

주) N: 분석에 사용된 표본 수, K: 연구 수, CI: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 I2: 총분산에 대한 실제 분산 비율, p-value: 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대한 유의수준(\* p<.05, \*\* p<.01, \*\*\* p<.001)

본 연구에서는 효과크기의 산출을 위해 오픈소스 기반의 통계 프로그램인 R을 사용하였다.

우선 기업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기회인식 역량에 대한 효과크기 9개, 관리적 역량에 대한 효과크기 12개, 기술적 역량에 대한 효과크기 11개, 전략적 역량에 대한 효과크기 8개, 그리고 관계 역량에 대한 효과크기 7개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평균 효과크기의 95% 신뢰구간을 통해 효과크기를 포함하는가 여부를 확인하였다. 개별 연구의 효과크기들은 신뢰구간으로 경계를 가지며 이는 개별 연구에서 추정된 효과크기의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낸다. 즉,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 신뢰구간은 효과크기의 정밀성을 나타내기도 하며(Borenstein et al., 2009), 하한선(LL: lower limit)과 상한선(UP: upper limit)으로 제시되는 신뢰구간이 짧을수록 효과크기가 정밀하다고 할 수 있다(황성동, 2015).

본 연구의 효과크기 산출 결과 및 신뢰구간은 다음의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회인식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가중화된 상관계수는  $r=0.30(K=9, N=1,929)$ 으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은 0.26~0.34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효과크기의 정도는 Cohe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리적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효과크기는  $r=0.29(K=12, N=2,437)$ 이며 신뢰구간은 0.22~0.36으로 분석되었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크기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효과크기의 정도는 중간 정도로 해석된다.

기술적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효과크기는  $r=0.28(K=11, N=2,476)$ 로, 신뢰구간은 0.18~0.37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효과크기는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효과크기의 정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전략적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효과크기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r=0.33(K=8, N=1,612)$ , 신뢰구간은 0.24~0.41로 확인되었다. 이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효과크기는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며, 효과크기의 정도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효과크기는  $r=0.23(K=7, N=1,455)$ 로, 신뢰구간은 0.18~0.27로 나타났다.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효과크기가 9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볼 수 있으며, 효과크기는 중간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 VI. 결론

### 6.1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벤처·창업기업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으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업의 성공 잠재력을 예측할 수 있는 창업가의 역량을 살펴보는 것은 창업분야 연구에서 중요한 주제로 사료된다.

이는 ‘역량’이 기본적으로 고성과자와 보통 성과자를 구별하는 행동을 설명해 주는 개인의 내적 특성을 의미하는 ‘성과 지향적’ 개념이기 때문이다. 즉, 개인이 역량이 있다는 것은 각 기능별 부문에서 최소한의 성과 수행 기준을 충족하는 능력을 입증하는 것뿐만 아니라, 효과적인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잠재력을 나타내기도 한다(Dainty et al., 2004).

이러한 맥락에서 Colombo & Grilli(2005)는 창업가가 보유한 지식과 스킬이 기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역량 효과(capability effect)’라고 언급하였으며, 기업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창업가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도 창업가의 ‘지식의 갭(knowledge gap)’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우선순위 과제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성과의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창업가 역량에 초점을 두고, 그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기존 연구들을 메타분석 방법론을 통해 체계적으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창업가의 역량요인 중 본 연구에서 다룬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메타분석 수행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들의 결과에서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가 혼재된 바와 달리, 본 연구에서 선정된 연구들을 종합한 결과 창업가의 기회인식 역량, 관리적 역량, 기술적



역량, 전략적 역량, 그리고 관계 역량은 기업성장을 유의하게 향상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기업성장에 대한 각 역량요인들의 전체적인 효과크기는 기회인식 역량이 중간정도( $r=0.30$ ), 관리적 역량이 중간정도( $r=0.29$ ), 기술적 역량이 중간정도( $r=0.28$ ), 전략적 역량이 중간정도( $r=0.33$ ), 그리고 관계 역량이 중간정도( $r=0.23$ )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창업가가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 시장 기회 포착과 관련된 기회인식 역량, 조직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관리적 역량, 자신의 전문분야 또는 기업의 산업분야와 관련된 기술적 역량,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전략적 목표 수립·실행과 관련된 전략적 역량, 그리고 내·외부 사람과의 관계 및 네트워크와 관련된 관계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창업가 개인이 이러한 역량들을 모두 보유하기 어려울 경우, 기업성과 향상을 위해 해당 역량들을 보유한 인력을 영입하여 균형있는 팀을 꾸릴 필요가 있다. 필요한 인재를 적시·적소에 영입하고 또한, 퇴출시키는 것 역시 창업가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역량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다.

특히 초기단계에 해당하는 벤처·창업기업일수록 당장의 아이디어, 비즈니스모델, 기술 및 제품 개발 등에 집중하여,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립하는 전략적 역량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체계의 구축이나 구성원들에 대한 리더십 역시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입증된 바와 같이, 전략적 역량, 관리적 역량 등을 포함한 모든 창업가 역량의 기업성장에 대한 효과크기가 중간수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업성과 제고를 위해 창업가는 이러한 역량들을 균형있게 확보하고 강화하는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간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장을 고찰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의 결과가 일관적이지 않게 보고되었음에도,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를 체계적으로 통합한 연구는 부재한 실정이다. 또한, 학자들마다 상이한 역량요인을 제시함에 따라 선행연구를 통해 창업가 역량요인에 대한 상대적인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었다(Morris et al., 2013).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 연구는 양적 방법론인 메타분석을 통해 기존 연구결과와의 차이점을 통합하고 표준화된 결과치를 제공하였다. 즉, 기존 문헌에서 일관적이지 않은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재정리하였다는 측면에서, 향후 창업가 역량을 주제로 한 연구들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성과에 대한 유의성이 검증된 역량들은 창업가가 창업준비 및 기업성장 과정에서 자신 및 팀의 역량을 자가진단할 경우, 그리고 정책 입안자 및 지원사업 수행자가 창업자에 대한 선정, 평가, 교육 및 사후관리를 수행할 경우 역량기반의 지원체제로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6.2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이상의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한계점이 있어, 향후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연구 설계가 이루어지기를 제안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메타분석에 포함되는 연구 선정 시 연구대상 기업을 국내의 법적, 정책적 기준에 준하여 선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는 창업기업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사업개시일 이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벤처기업은 벤처확인요건을 갖추고 인증을 받은 기업을 지칭한다.

이와 달리 해외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벤처·창업기업은 업력이나 공식 인증제도에 따른 분류기준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신생 벤처기업(New ventures)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음에도 업력이 7년 이상인 기업이 포함되는 연구(Chandler & Hanks, 1993; 1994), 업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연구(Chen & Chang, 2013) 등이 존재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결과의 정책적·실무적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의 법적, 정책적 기준에 따른 기업의 업력 또는 성장단계를 구분하여 연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배경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종속변인인 기업성장을 재무적 성과로 한정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벤처·창업기업의 비재무적 성과 등을 연구에 포함하여 창업가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기를 제안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과 기업성과 간의 관계를 다룬 실증연구 결과를 종합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음에 따라, 역량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분석을 연구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다.

향후 다양한 기업특성에 따라 표본을 집단별로 구분하여 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에 대해 비교를 수행하거나, 교육효과에 따른 역량의 전·후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시도된다면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메타분석에는 비교적 제한된 연구의 수가 포함되었다고 사료된다. 메타분석에 포함되는 연구의 수 또는 효과크기의 수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따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연구 설계에 있어서는 연구자가 살펴보고자 하는 주제의 적합성, 개별연구의 검정력이 더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향후 창업가 역량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갈수록, 본 연구보다 확장된 연구 및 효과크기의 수를 포함하여 메타분석을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를 통해 체계적인 이론적 기반에 근거한 통합 역량모델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

## REFERENCE

- 김경식(2005). *벤처기업가의 역량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 김춘근·이충석·김진수(2014). 기술창업기업 초기 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연구*, 21(5), 63-86.
- 양수희·김명숙·정화영(2011). 기술창업기업의 기업가 역량과 기술사업화 능력이 경영성공에 미치는 영향. *벤처창업연구*, 6(4), 195-213.
- 유래현(2016). *중소기업 경영자 역량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성장단계별 차별적 영향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 윤종록·김형철(2009). 벤처기업의 창업가특성과 차별화전략이 경영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한경영학회지*, 22(6), 3693-3721.
- 이대형(2016). *창업자의 심리적 특성과 역량특성이 창업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컨설팅 지원사업의 창업컨설팅 조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이인우(2009). *기술창업기업의 기술혁신지향성과 시장지향성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이혜영·김진수(2017). 초기 기술창업기업의 창업가 역량과 창업팀 역량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창업학회지*, 12, 31-56.
- 이혜영·김진수(2018). 초기 및 후기 기술창업기업 창업가의 역량 모델에 관한 연구. *벤처창업연구*, 13(4), 99-116.
- 임아름·김형철·김권필(2015). 청년창업가의 역량이 창업행동과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5(3), 143-154.
- 자오징징(2016). *중국 청년창업가의 개인적 역량이 창업성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정주호(2010). *기업가 정신 및 역량 수준이 기업성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황성동(2015). *알기 쉬운 메타분석의 이해*. 서울: 학지사.
- Ahmad, N. H.(2007). *Cross cultural study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entrepreneurial success in SMEs in Australia and Malaysia*. Doctoral dissertation, The University of Adelaide.
- Ahmad, N. H., Ramayah, T., Wilson, C., & Kummerow, L.(2010). Is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business success relationship contingent upon business environment? A study of Malaysian SMEs.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3), 182-203.
- Barazandeh, M., Parvzian, K., Alizadeh, M., & Khosravi, S.(2015). Investigating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on business performance among early stage entrepreneurs,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GEM 2010 survey data). *Journal of Global Entrepreneurship Research*, 5(1), 18.
- Baum, J. R., Locke, E. A., & Smith, K. G.(2001). A multidimensional model of venture growth.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292-303.
- Bird, B.(1995). Towards a theory of entrepreneurial competency. *Advances in Entrepreneurship, Firm Emergence and Growth*, 2(1), 51-72.
- Borenstein, M., Hedges, L. V., Higgins, J. P., & Rothstein, H. R.(2009). *Introduction to meta-analysis*. Chichester, John Wiley & Sons.
- Brush, C. G., Greene, P. G., & Hart, M. M.(2001). From initial idea to unique advantage: The entrepreneurial challenge of constructing a resource base. *The Academy of Management Executive*, 15(1), 64-78.
- Chandler, G. N., & Hanks, S. H.(1993). Measuring the performance of emerging businesses: A validation study.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8(5), 391-408.
- Chandler, G. N., & Hanks, S. H.(1994). Founder competence, the environment, and venture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3), 77-90.
- Chandler, G. N., & Jansen, E.(1992). The founder's self-assessed competence and venture performance.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7(3), 223-236.
- Chen, M. H., & Chang, Y. Y.(2013). The impacts of human capital in enhancing new venture's performance: Competence, motivation and creativity. *Journal of Knowledge-based Innovation in China*, 5(2), 146-168.
- Chung, J. H.(2010).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entrepreneurship and competency on management performance*.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Cohen, J.(1988). *Statistical power for the behavioral sciences (2nd ed.)*. Hillsdale, NJ: Erlbaum.
- Colombo, M. G., & Grilli, L.(2005). Founders' human capital and the growth of new technology-based firms: A competence-based view. *Research Policy*, 34(6), 795-816.
- Cooper, H.(1998). *Synthesizing research: A guide for literature reviews (3rd ed.)*. Thousand Oaks, CA: Sage.
- Dainty, A. R., Cheng, M. I., & Moore, D. R.(2004). A competency-based performance model for construction project managers. *Construction Management and Economics*, 22(8), 877-886.
- Gilbert, B. A., McDougall, P. P., & Audretsch, D. B.(2006). New venture growth: A review and extension. *Journal of Management*, 32(6), 926-950.
- Glass, G. V.(1976). *Primary, secondary, and meta-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5, 3-8.
- Grant, R. M.(1991). The resource-based theory of competitive advantage: implications for strategy formulation.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33(3), 114-135.
- Herron, L. A., & Robinson Jr, R. B.(1990). *Entrepreneurial skills: An empirical study of the missing link connecting the entrepreneur with venture performance*. In National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 San Francisco, CA.
- Higgins, J., & Green, S.(Eds.)(2011).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version 5.1.0*. The Cochrane Collaboration, Retrieved from <http://handbook.cochrane.org>.
- Hunter, J. E., & Schmidt, F. L.(1990). *Methods of meta-Analysis: Correcting error and bias in research findings*. Newbury Park, CA: Sage.
- Hunter, J. E., & Schmidt, F. L.(2004). *Methods of meta-Analysis: Correcting error and bias in research finding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 Hwang, S. D.(2015). *Understanding of Meta-analysis*. Seoul: Hakjisa.

- Kaur, H., & Bains, A.(2013). Understanding the concept of entrepreneur competency.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 Social Sciences Research*, 2(11).
- Kelley, D., & Marram, E.(2010). Beyond start-up: Developing and sustaining the growing organization. *The Portable MBA in Entrepreneurship(4th ed.)*, 355-383.
- Kim, B. K., & Jung, C. Y.(2013). A meta-analysis on the studies of factors affecting career success and moderating effect of gender of employees in corporations. *Journal of Agricultural Education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45(2), 123-148.
- Kim, C. K., Lee, C. S., & Kim, J. S.(2014).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the early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Corporation Management of Academy Journal*, 57, 63-86.
- Kim, K. S(20015). *A study on the effects of venture entrepreneurs' competence in their business performances*.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Le Deist, F. D., & Winterton, J.(2005). What is competence?. *Human Resource Development International*, 8(1), 27-46.
- Lee, D. H.(2016).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competency characteristics on performance for start-up: Moderating effect of start-up consulting of consulting support program for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Master's Thesis, Han-Bat University.
- Lee, H. Y., & Kim, J. S.(2017). The impacts of entrepreneurs' and entrepreneurial teams' competency on performance of new technology-based startups. *Journal of the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2, 31-56.
- Lee, H. Y., & Kim, J. S.(2018). A study on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y model in early-and late-stage technology-based venture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4), 99-116.
- Lee, I. W.(2009). *An empirical study on the technological-orientation & market-orientation of startup enterprises an their effect on managerial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Kyunghee University
- Lim, A. R., Kim, H. C., & Kim, K. P(2015). The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nd entrepreneurial performance. *Korean Management Consulting Review*, 15(3), 143-154.
- Man, T. W.(2001).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in the Hong Kong services sector*. Doctoral dissertation, The Hong Kong Polytechnic University.
- Man, T. W., Lau, T., & Chan, K. F.(2002). The competitivenes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 conceptualization with focus on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7(2), 123-142.
- Man, T. W., Lau, T., & Snape, E.(2008).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the performance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 investigation through a framework of competitiveness. *Journal of Small Business & Entrepreneurship*, 21(3), 257-276.
- Masurel, E., & Van Montfort, C. A. G. M.(2003). *SME Innovation and the Crucial Role of the Entrepreneur*.
-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Sadler-Smith, E., Hampson, Y., Chaston, I., & Badger, B.(2003). Managerial behavior, entrepreneurial style, and small firm performance.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1(1), 47-67.
- Snell, R., & Lau, A.(1994). Exploring local competences salient for expanding small businesses. *Journal of Management Development*, 13(4), 4-15.
- Song, M., Podoymitsyna, K., Van Der Bij, H., & Halman, J. I.(2008). Success factors in new ventures: A meta-analysis. *Journal of Product Innovation Management*, 25(1), 7-27.
- Tehseen, S., & Ramayah, T.(2015).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nd SMEs business success: The contingent role of external integration, Mediterranean. *Journal of Social Sciences*, 6(1), 50.
- Yang, S. H., Kim, M. S., & Jung, H. W.(2011). The effects of entrepreneur's competence and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capabilities on business performance of technology-based start-ups.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6(4), 195-213.
- Yu, R. H.(2016). *A study on the effect of SME CEO's competencies on corporate performance*.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 Yu, T. F. L.(2001). Entrepreneurial alertness and discovery. *The Review of Austrian Economics*, 14(1), 47-63.
- Yun, J. R., & Kim, H. C.(2009). The effect of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differentiation strategy on performance of venture business. *Korea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22(6), 3693-3721.
- Zhao, J. J.(2016). *The effect of Chinese young entrepreneurs' competence on entrepreneurial success: A mediating role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Master's Thesis, Busan University.

# Entrepreneurs'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A Meta-Analysis\*

Lee, Hye Young\*\*

Kim, Jin Soo\*\*\*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future studies by systematically integrating existing empirical studies that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As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ies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are mixed, this study tries to derive different results from individual studies through meta-analysis into standardized statistics(effect sizes).

To accomplish the purpose, this study developed hypotheses about the positive effects of the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including opportunity recognition competency, managerial competency, technical-functional competency, strategic competency, and relationship competencies on the business performance through theoretical reviews of the literature. Also, this study conducted meta-analysis with 15 sample data using open source based statistical program 'R'.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opportunity recognition competency, managerial competency, technical-functional competency, strategic competency, and relationship competency were found to significantly affect financial business performance. Also, each of the factors had a moderate effect size on the performance. Among these competencies, the most effective factor was the strategic competency, followed by the opportunity recognition competency, technical-functional competency, and relationship competency.

There is still no study using meta-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ntrepreneurs' competencies and business performance in South Korea.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developing the theoretical basis of future studies.

*Keywords: Entrepreneurs' competencies, Startups, Ventures, Entrepreneur, Competency, Meta-analysis*

---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NRF-2015S1A5A2A01014400).

\*\* First Author, Senior Researcher, KISED, hyelee528@gmail.com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College of Business & Economics, Chung-Ang University, sunny@cau.ac.kr